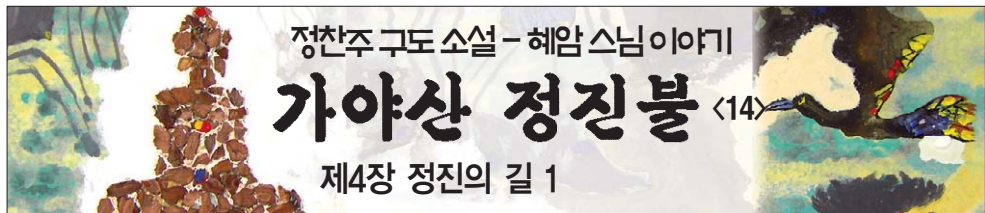


화두수행, 들어도 들리지 않고 보아도 보이지 않아



해방 직후 경부선 완행열차는 낮이건 밤이건 언제나 만원이었다. 자리를 잡아가려면 시발역인 부산역에서 타야 가능했다. 대구역에서는 이미 열차 칸마다 승객들이 만원이었으므로 입석으로 서서 가는 것조차 힘들었다. 그래서 빈 화물칸에 올라타는 승객들이 많았다. 화장실이나 의자는 없지만 바닥에 편하게 앉아 낮모르는 승객끼리 잡담을 나눌 수 있는 칸이 화물칸이었다.

해인사를 떠난 해암은 대구역에서 입석표를 구입한 후 화물칸으로 올라왔다. 화물칸에는 이미 30여명의 승객들이 바닥에 앉아 잡담을 나누고 있었다. 행색으로 보아 단체로 여행을 가는 기독교 신자들이었다. 십자가 배지를 가슴에 단 장년의 인솔자가 있었고, 신자들은 그의 지시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다. 해암은 다른 화물칸으로 옮겨갈까 하고 망설이다가 그만두었다.

해암을 바라보는 그들의 눈초리가 곱지 않았다. 그러나 해암은 누구나 탈 수 있는 화물칸이므로 그들의 뒷세에 신경 쓰지 않았다. 뒷세를 부린다고 해도 고집이 센 해암이 선선히 물러날 것도 아니었다. 해암은 조금도 주눅 들지 않고 화물칸 한쪽으로 가져움에는 양반자세로 태연하게 앉았다.

열차가 대구역 역사를 빠져나오자 인솔자가 책을 한 권 꺼내들었다. 그러자 다른 사람들도 책을 꺼내 들었다. 해암이 결눈으로 보니 찬송가책이었다. 해암은 상관하지 않고 그때부터 반가부좌를 틀었다.

“잘 됐다. 화두를 들어보자. 지난 동안거 때 공부 잘 했는지 안 했는지 시험해 볼 좋은 기회가 아닌가.”

해암은 두 손을 단전 위에 모으고 좌선에 들어갔다. 그러자 기독교 신자들이 희한한 구경거리가 생겼다는 듯이 해암을 훑어볼듯 쳐다보았다. 열차가 달리면서 크게 달경거리자 한 기독교 신자가 해암의 등에 손을 짚었다. 그래도 해암은 개의치 않고 반가부좌 자세를 풀지 않았다.

인솔자는 열차가 대구 시내를 완전히 벗어났을 때 손을 저으며 지휘했다. 그러자 기독교 신자 30여명 모두가 그의 지시에 따라 찬송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해암은 화두를 들고 자신을 시험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 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다. 머릿속에는 오직 화두 하나로만 가득 차게 했다. 화두라는 방패로 찬송가 소리를 막았다. 해암은 이것도 수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부르는 찬송가를 마음으로 듣지 않으니 들어도 들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을 마음으로 보지 않으니 보아도 본 것이 아니었다. 만행 길에 오른 해암으로서의 희한한 경험이었다.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화두의 힘을 느꼈다.

인솔자가 손짓을 하자 모두 찬송가를 멈추었다. 그제야 해암도 지그시 감았던 눈을 떴다. 어느 새 열차는 김천역을 지나 힘겹게 추풍령을 넘고 있었다. 열차는 벌써 지친 듯 오르막 선로를 힘겹게 서행하고 있었다. 차창 밖에는 연기가 자욱했다. 화전민들이 새로 일군 밭에 불을 놓고 있었다.

그때 인솔자가 해암에게 다가와 말했다.

“나는 개신교 장로인데 스님은 어디 계시오?”

“어디에 있겠습니까. 보드시피 지금 앉아 있는 중입니다.”

“서울 가는 길이군요.”

기독교인들 찬송가 들으며 오직 화두 하나로 가득차는 경험해

“오대산으로 갑니다.” 장로는 나이가 50대쯤으로 보였다. 귀밑머리가 희끗했다.

“젊은 양반이 하필이면 왜 스님이 됐소.” “처사님은 왜 기독교 장로가 됐습니까.” “스님이 불쌍하군요.”

“불쌍하다고 생각해주지 고맙소.” 해암은 장로를 쳐다보지 않고 그를 치하하는 말투로 말했다. 그러자 장로가 충고하는 말투로 반격하듯 말했다.

“금을 캐고자 하면서 금맥을 모르고 다니니 하는 말이오.”

“그렇다면 처사님께서 금맥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시오. 제대로 가르쳐준다면 당장 이 승복을 벗어버리겠소.”

장삼을 벗겠다는 해암의 단호한 태도에 장로가 흠뻑 놀랐다. 해암은 우회하는 법이 없었다. 언제나 정면 돌파하는 것이 해암의 성격이었다. 해암을 쳐다보면 기독교 신자들도 조금 기가 질린 표정을 지었다. 해암의 기체에 주춤했던 장로가 자신을 지지하는 30여 명의 신자들을 보고는 용기를 내 말했다.

“금맥은 하나님에게 있소. 하나님을 믿어야만 금을 캐 수 있다는 말이오. 내 말을 알아들겠소.”

장로의 말을 들은 기독교 신자들 모두가 ‘아멘’ 하고 박수를 쳤다. 그러나 해암은 박수소리가 멎기를 기다렸다가 또박또박 말했다.

“중승입니다. 하나님이 금맥이라면 지금 내게 그 하나님을 보여주시오. 그러면 처사님 말씀을 믿겠소.” “성경을 믿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소.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소.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이번에도 신자들이 모두 ‘아멘’ 하고 박수를 쳤다. 그래도 해암은 신자들의 기체에 들러서지 않았다.

“그런 조건을 달지 말고 지금 당장 보여주시오. 내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면 이 승복을 벗어버리겠다는 말이오.”

장로가 더 이상 대꾸를 못하자 해암이 말했다. “내 생각을 말하겠소. 금맥은 내 안에 있소. 금맥은 나를 떠나 있는 것이 아니요. 내 마음이 불로창고라는 말이오.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불법입니다.”

해암의 말에 화물칸 분위기가 반전됐다. 신자들 모두가 입이 열려버린 듯 대꾸를 못했다. 그러자 해암이 기독교 신자들을 둘러보고는 한 마디 더 물었다.



그림 · 최문정

“ 나를 만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 교주·스승을 만나고자 수행하지 않습니다

다. 놀랍게도 호기심을 나타내고 있는 신자들도 있었다. 해암은 그런 신자들을 향해서 물었다.

“왜 그런지 속 시원한 해명을 듣고 싶습니다.” “아니 한 번 들어봅시다.”

해암은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여드는 소리로 대답하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내 아들놈이라고 하니 기분이 상하셨을 겁니다.”

“장로님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야 젊은 스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 아들놈이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장로도 웃었다. 그때 해암은 목소리를 높여 진지하게 말했다.

“이 범부가 어찌 성인들께 욕을 하겠소. 다만 여러 분께서 우상, 우상 하면서도 진자 우상을 모르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별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정반왕

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장로가 통명스럽게 말했다. “이보시오. 젊은 스님, 하나님은 우주의 창조주이신데 나오라고 할 게 어디 있소. 성경을 한 번이라도 읽어보고 물으시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디서 나왔습니까?” 아무도 나서지 못하자 해암이 다시 물었다.

“대답을 하시는 분이 없군요. 그렇다면 똑같은 질문을 내게 해보시오. 나는 ‘예수는 내 아들놈’이라고 대답하겠소.”

장로가 참지 못하고 분개했다. “예수님을 모독하다니 당장 그 말을 취소하십시오!”

“장로님, 내 얘기를 다 듣고 나서 화를 내도 좋습니다.”

해암은 미소를 지었다. 그러면서 기독교 신자들을 둘러보았다. 신자들도 장로와 같이 화를 내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자 해암의 논리와 기체에 놀려

어찌 불성있는 생명 먹고도 일체중생 제도한다 하리까

의 아들, 싯다르타 태자의 육체가 성인입니까. 그 육체는 고깃덩어리일 뿐이고 그 마음이 성인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육체가 성인이 될 수는 없지요.” 누군가가 맞장구를 쳤다. 해암은 그의 맞장구를 놓치지 않고 말했다.

“그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분이 예수입니까. 역시 육체는 고깃덩어리요. 그 마음이 예수가 아니겠습니까.”

해암이 던지는 질문에 아무도 대꾸를 못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다. 다만 대전역을 넘어서 한 신자가 해암에게 싸운 도시락을 내밀었다. 반은 밤이었고, 반은 반찬이었다. 그러나 반찬은 먹을 것이 없었다. 계란과 멸치조림, 미늘이 들어간 김치뿐이었다. 반찬 없이 맨밥을 먹는 해암에게 그 신자가 물었다.

“스님, 왜 반찬을 먹지 않습니다.” “계란과 멸치에도 불성이 있어 그렇습니다. 또한 마늘은 사람을 사납게 하고 마음을 탁하게 하는 기운이 있어 먹지 않습니다.”

“불성이 무엇입니까.” “부처님 성품입니다. 수도인의 자세는 모름지기 도를 닦아 일체중생을 제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불성이 있는 생명을 먹고도 일체중생을 제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자비가 아닙니다.”

해암은 도시락의 밥도 몇 젓가락 뜨고 말했다. 글자 그대로 마음에 점을 찍듯 점심을 하고 말했다. 도시락을 준 신자가 다시 말을 걸어왔다. “스님, 어디까지 가십니까.” “오대산 상원사로 갑니다.” “상원사에는 누가 계시니까.”

“한암 큰스님이 계시니다. 하나 그 스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고 나를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나를 만나는 것이 불교입니다. 불교는 교주나 스승을 만나고자 수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해암은 상원사로 하안거 방부를 들이려고 가는 길이었다. 서울까지는 열차로 가지만 상원사 초입인 진부까지는 완행버스를 탈 생각이었다. 화물차 칸은 이제 조용했다. 누구도 찬송가를 부르지 않았다. 해암은 다시 반가부좌를 틀었다. 차창 밖 들녘은 이른 봄이었다. 꽃이 피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빈 논밭에는 푸른 기운이 돌고 있었다. 농부들이 농사일을 준비하고도 있었다.

해암은 농사짓는 고향집 가족이 생각났다. 혼자만 출가해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그러나 언젠가 고향집 가족 모두를 출가시켜 그 미안함을 갚겠다고 원을 세웠다. 그런 도력을 가지려면 단 한 순간도 수행을 게을리 할 수는 없었다. 웅맹정진하지 않고 나태해진다는 것은 불보살은 물론 가족에게 죄를 짓는 일이었다. 해암은 다시 효부 스님에게 탄 무자 화두를 들었다.

“서울 가는 길이군요.”

“아니 한 번 들어봅시다.”

해암은 기독교 신자들 중에서 누군가가 기여드는 소리로 대답하자 지체하지 않고 바로 말했다.

“아마도 예수님이 내 아들놈이라고 하니 기분이 상하셨을 겁니다.”

“장로님이 화를 내시는 게 당연합니다.”

“이제야 젊은 스님이 바른 말씀을 하시네.”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도 내 아들놈이요. 이제 속이 시원합니다.”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서 웃음이 새어 나왔다. 장로도 웃었다. 그때 해암은 목소리를 높여 진지하게 말했다.

“이 범부가 어찌 성인들께 욕을 하겠소. 다만 여러 분께서 우상, 우상 하면서도 진자 우상을 모르기에 말씀드린 겁니다. 별을 보고 진리를 깨달은 정반왕

[계속]

공부하다 죽어라

조계종 제10대 종정 해암 대종사의 선기가 살아 있는 수행 도량 원당암에서 '성불'의 길을 닦아 보십시오. 재가자 선수행의 중심도량 원당암은 영가전에 만연패를 모심으로써 생사가 둘 아닌 도리 속에서 열반정적을 이루는 수승한 원력의 도량입니다.

정진안내

- 철야 용맹정진 매월 1, 3주 토요일 오후 7시 ~ 새벽 3시
- 7일 철야 용맹정진 여름 : 음력 7월 1일 ~ 8일 / 겨울 : 음력 12월 1일 ~ 8일
- 동안거결제 음력 10월 15일 ~ 1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2월 1일 ~ 3월 29일
- 하안거결제 음력 4월 15일 ~ 7월 15일 ▪ 산철결제 음력 8월 1일 ~ 9월 30일
- 만년위패봉안대불사 합동천도제
- 매년 설날, 중앙절 (음력 9월 9일), 백중, 추석, 매월 음력 15일 (아미타재일)

해인사 원당암 | 경남 합천군 가야면 차인리 10번지
전화 055)932-7308 / 팩스 055)931-7515 · www.wondangam.org

대도를 배우려면 불을 비벼 내듯하여 연기가 나더라도 쉬지를 말지 마라. 불꽃이 나타나는 그때가 되어야만 비로써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네.

- 해암 대종사 법어